

내년 집값 3.5%·전세 4.0% 하락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4월 이후 하락폭 둔화”

올해 주택거래량 54만건·내년 75만건 예상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교환율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3.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12월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3년 주택시장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과 금리 등 경제변수와 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주택 매매가격을 예측한 결과, 집값이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내년 집값은 상반기 중 하락곡면의 저점을 형성하고,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약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 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해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가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년 임대차시장은 월세 전환수요로 전세값은 하락하고, 월세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전국 전세가격은 4.0% 하락하고, 월세가격은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올 한해 8차례 기준금

리가 인상된 영향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매매가격 하락과 임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전세가격 하락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영향은 내년 상반기 중 저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 약보합으로 전환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46.9% 감소한 54만건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6년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주택 매매거래량(97만건)의 55% 수준이다.

주산연은 과거 거래추이를 토대로 2023년 주택매매거래량을 추정한 결과, 올해 대비 약 39% 증가한 75만건의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주택 공급상황도 여의치 않다. 주산연은 집값 급락으로 분양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내년 주택 물량도 30% 내외로 감소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주택공급 물량이 급감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공공부문에서 민관 공동방식 등으로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민간이 기준에 확보한 토지에 팔리지 않는 분양아파트 대신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등 대체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산연은 고금리와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단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뉴시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9개월째 ↓

20대 가입자 석달째 감소…청년층 인구 감소 영향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석 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5만 9000명(2.2%)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지속했다. 9월 이후부터는 30만명대 규모로 늘어난 데 그쳤다.

산업별 가입자 수를 보면 제조업은 369만5000명, 서비스업은 1033만2000명이다.

가입자가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복지(7만1000명), 출판영상통신(5만8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3000명), 숙박음식(4만3000명) 등이다.

제조업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지난 7월 7만9000명→8월 7만8000명→9월 7만4000명→10월 7만2000명→6만7000명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업(4만5000명), 도소매업(4000명) 등 대부분 업종의 가입자 증가 규모가 줄었다.

특히 온라인쇼핑, 편의점 확대 영향으로 코로나19 시기에도 가입자 증가 추세가 지속됐던 소매업(-9000명)은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2004년 5월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행정 가입자는 코로나19 대응 직접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지난 5월 -5600명→6월 -2만7600명→7월 -3만2300명→8월 -2만5700명→9월 -4만7300명→10월 -5만4600명→11월 -4만6000명으로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가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지난 9월(-9000명)과 10월(-1만7000명)에 이어 11월(-2만9000명)에도 전년 같은 달보다 적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 자체가 적어진 데다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뉴시스

미래노동시장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주·월·분기·반기·연’ 확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시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당시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 5개월간의 논의 결과 연구회

는 근로시간 부문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등으로 폭넓게 늘려 관리단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회 권고다.

논의 과정에서 ▲월 ▲월, 분기, 반기 ▲월, 분기, 반기, 연 등 세 가지 안이 검토됐는데, 마지막 안이 최종 권고됐다.

연구회 최장민 권순원 속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폭넓게 하자는 것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車 생산·내수·수출 4개월 연속 증가

전기·수소차 수출액 8억 달러 최고치 경신

지난달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수소차 수출액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산업은 생산(25.4%), 내수(8.4%), 수출(25%)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생산·내수·수출 모두 공급망 불안은 지속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은 개선되면서 8월 이후 전월 대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차 생산은 동일한 조업일수에도 반도체 수급난 기저효과로 전년동월 대비 25.4% 증가한 37만9797대를 생산해 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11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현대차(17만1240대), 기아(15만1934대)의 연중

최대 생산 실적에 힘입어 올해 중 최고치 기록했다.

중형3사(한국GM·쌍용·르노코리아)도 모두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GM은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기저효과와 올해 주력 수출 차종 역대 최대 생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08.5% 증가했다.

내수 판매(수입차 포함)는 지난해와 비교해 8.4% 증가한 15만5942대로 연중 최고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산차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12만6730대가, 수입차는 41.9% 늘어난 2만9212대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카’ 톱5는 카니발(7566대), 쏘렌토(6656대), 스포티지(5762대), 아반떼(5700대), 캐스퍼(5573대) 순으로 모두 국산차였다. /뉴시스

여수광양항만공사 스마트항만 국제 포럼 성료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주관한 ‘2022 스마트항만 국제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국내 최초로 열린 이번 포럼은 ‘스마트 항만의 해답을 구하다’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지난 9일 개최됐다.

이날 오전 기조연설에는 컨테이너 박스와 경제의 관계를 다룬 베스트셀러 ‘더 박스(THE BOX)’의 저자 마크 레빈슨(Marc Levinson)이 현장 연설을 통해 ‘더 박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전담하고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이어 이날 오후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인 ‘도전의 스마트 항만’ 세션에서는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을 좌장으로 ‘완전 자동화 터미널 운영 시스템 구축 사례’와 ‘자동화 항만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열렸다.

우리쌀로 ‘역대 소득’ 고부가 식품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최근 쌀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쌀을 원료로 독특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역대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다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과자나 빵, 맥주 등에 수입산 쌀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렸다.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원료를 다른 농특산물과 융합하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해 전방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이목을 널리 알리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 해양생태 관광지인 여수에서 ‘딸기잡살떡(떡꼬지)’ 업체를 운영하는 김지나 대표는 연간 32t(1억원)의 국산 찰쌀과 지역에서 생산한 새콤달콤한 딸기를 이용해 떡기를 쫄면 찰살떡을 생산, 연간 20만 장자를 판매해 역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딱딱해서 씹어 먹는 누룬지의 재탄생도 화제다. 순천 농업회사법인 ‘쌍지들(김해옥 대표)’은 현미와 찰쌀, 흑미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오곡누룬지차’를 개발했다.

장성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연 20t)을 고집하며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 업체도 있다.

장성 ‘올바름(대표 김경광)’은 유기농쌀 90% 이상이 함유된 ‘고소한 통리’, ‘팥과자’, ‘양파떡볶’, ‘고구마떡볶’ 등 20종을 생산해 자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올바름(www.allbamm.kr)’과 수출 등을 통해 연간 13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롯데하이마트, 25일까지 ‘홀리데이 선물 특집전’ 롯데하이마트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홀리데이 선물 특집전’을 펼친다. 특가 세일, 동시 구매 할인, 온라인 선물하기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롯데하이마트 모델이 ‘홀리데이 선물 특집전’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신혼부부 소득 6천만원 돌파…빚 1억5300만원 ‘역대 최대’

맞벌이 비중 54.9% ‘최대’…연평균 소득 6400만원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 이상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도 사상 처음 6000만원을 돌파했다.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를 보였지만, 이들 10명 9명은 금융권에 대출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했다.

통계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중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

으로 한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87만1428쌍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4.9%(47만 8040쌍)로 전년보다 2.9%포인트(p) 늘었다.

맞벌이 부부 비중은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를 보였다.

맞벌이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근로·사업 소득은 6400만원으로 전년(5989만원)보다 6.9%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증가 폭이 크다. 연간 평균 소득이 6000만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4%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5000만원 미만 22.0%,

7000만~1억원 미만은 20.2% 순이었다. 1억 이상도 14.8%로 집계됐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811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9.1%(77만6818쌍)로 전년보다는 1.6%p 증가했다. 대출 잔액 규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작년 11월1일 기준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 대출을 의미한다. 사채 등은 제외됐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1억3258만원)보다 15.4%(2042만원) 늘었다.

중앙값은 대출금을 받은 신혼부부를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의미한다. 대출 잔액은 1억~2억원이 30.7%로 가장 많았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화장품 국제표준기준 인증 취득

ISO 22716 인증…‘전남 공공기관 최초’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국제인증전문기관 글로벌표준인증으로부터 화장품 국제표준기준(ISO 22716) 인증을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O 22716은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관한 국제표준기준으로서 제조 업체가 화장품 제조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 규정으로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국제 간의 무역 장벽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 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ISO 22716 인증 취득으로 화장품 안전 제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외 화장품 GMP 심사 시 심사평가 면제 및 해외 고객사 방문 평가 시 대응 능력 강화, 국제적인 품질 경쟁력 입증에 따른 화장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도이투스 기자